

수원보호관찰소

○ 매체 : 로이슈(2025. 10. 13.)

○ 제목 : 수원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나서

수원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나서

기사입력:2025-10-13 20:23:39



(사진제공=수원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장안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나섰다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호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힘써오던 중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번에는 장안로타리클럽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 도배 봉사동아리와 협력했다.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오영호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며 지속적인 봉사를 약속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양현규 소장은 “주거환경개선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대상자는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고, 이는 대상자의 재비행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을 설명했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 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